

목포공공도서관,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섬 지역 학교 지원

학교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완도·신안 도서 지역 확대

상반기 28교·하반기 16교·총 44개 학교 참여할 예정

목포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4월 18일부터 목포·완도·신안 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 ‘교과 연계 그림책 읽기’, ‘주제가 있는 인문학 강연’, ‘한 학기 한 권 읽기’, ‘자서전 쓰기’ 총 5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28교, 하반기 16교, 총 44개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없는 완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완도 노화도, 금일도, 소안도 등 도서 지역에 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파견하여 신안지역 혹은 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는 온라인 Zoom 수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학교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학교별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하였고 강연자 및 도서 선정, 운영 시간 등 작은

부분까지도 학교 현장과 긴밀히 연계하여 참가 학교 및 담당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목포공공도서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교수학습자료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 인적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핵심 사업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학교 독서교육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교육청 Wee센터, 민·관 협의체 위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 지원 협의회 개최

고흥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9일 고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실에서 '2022.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15명의 민·관 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각 현장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례를 나누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고흥 산업과학고등학교 교감은 “최근 교육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각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에 대한 대책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의체 위원 신선영 대표는 “온 마음이 학생들을 품어주는 교육을 직접 실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교육장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심리적인 지지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협의체 위원들이 따뜻한 애정으로 품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학생들 또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흥교육지원청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 강화’



무안교육지원청은 19일 학업 복귀 지원과 비행 예방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반기 민·관 협의회

학업중단예방에 필요한 세부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

무안경찰서,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실 및 학업중단 집중지원학교,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단체(무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무안읍교촌7리)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관련 기관별 사업 소개와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학업중단예방에 필요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운영사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운영 방향을 나누고 다양한 사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김란 교육장은 “학업중단(위기)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접거나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서적인 안정과 학업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들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역량강화 방안 모색

‘문제행동 지원체제 구축 특수교육대상학생 건강한 성장’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이 19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위기행동 및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 중재와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중재 운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도내 2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9개 특수학교 행동중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욱 심해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문제행동 및 위기행동 중재를 위한 운영 사례 공유 및 행동중재 지원 역량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은화학교 문병훈 교사의 ‘특수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행동 개념과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과 나주이화학

교 장영에 교사의 ‘행동중재 컨설턴트의 역할과 과정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강의를 듣고 생각을 나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안 받아 실제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생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 지원하고, 전년도에 이어 제2기 행동중재 전문요원 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